



이라크전쟁과 한반도

글 송영선 | 한국국방연구원

■ 미국은 왜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할 듯 하다. 따라서, 전쟁의 주체가 되는 미국이 향후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봉쇄와 억제” 중심의 군사 전략을 “억제와 격퇴”로 변화시킴으로써 훨씬 더 공세적인 군사 전략을 택하였다. 즉, 핵은 이제 상대방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을 격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술의 국경선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유엔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더군다나, 이슬람이라는 문화적인 유대 위에 석유를 지렛대로 하여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후세인은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민주주의 질서 구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제일 먼저 퇴치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것이 미국의 이라크전쟁 명분이다.

물론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미국이 표면에 내세우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를 위해서라는 이유 이외에도, 전쟁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전략적 이익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의 세계 최고의 국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려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라크가 이러한 미국적 가치에 정면 도전하려고 하는한, 이라크전쟁은 시한 폭탄이다. 시간의 문제이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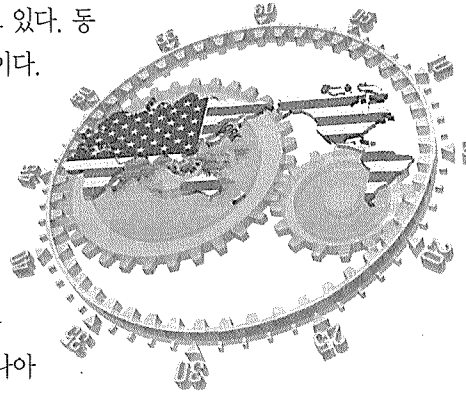
■ 이라크전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구의 다른 저편 10,0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전쟁이 한반도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는 남북한 관계, 미북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라크전쟁이 한반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면, 중동에 의존하는 석유 공급상에 차질이 일어나고 유가가 급등할 것이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동지역의 건설이나 수출 및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그리고 경제 심리적인 공황 유발에 의한 소비투자가 급감하는 것 등의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전비 부담도 경제적으로 플러스는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가가 인상되면 전후 중동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고 후세인 정권이 축출될 경우에는 유가 안정에 의해 한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슬람이라는 문화적인 유대 위에 석유를 지렛대로 하여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후세인은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민주주의 질서 구축과 세계 평화를 위해 제일 먼저 퇴치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라크전쟁이 한반도의 안보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이라크전쟁이 어떻게 진전되고, 전쟁 중에 북한이 미국의 핵 사찰 및 핵 폐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개방·개혁 정책을 얼마나 성의있게 추진해 가느냐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개선되어질 수도 있고, 더욱 더 악화되어질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그들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오히려 미북 관계의 향방은 정해 질 것이다. 이라크전쟁이 한국에게 시사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에너지 질서의 재편 가능성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석유를 미국에 대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00년 현재 미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24% 선인데 이것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아갈 경우에는 2020년에 이르러서는 5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돌출구, 즉 새로운 석유 공급지를 미국의 통제, 혹은 최소한 미국의 관할 하에 두지 않으면, 미국은 석유 공급국들에 의해 그들의 군사전략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예방적인 조치로 자국의 주도로 에너지 안보를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주관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무기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최소한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계산은 분명 동북아 국가들의 동맹 구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먼저, 한국

역시 중동 이외의 석유 공급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동시에 미국은 자원국인 러시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러시아가 이라크전쟁에서 지나치게 미국을 견제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러시아 견안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을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향후 그들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려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이다. 미국 주도의 에너지 안보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의 구도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 소요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구도라는 것이 동맹 지속의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문제의 접근은 동맹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미국의 이라크전쟁 지원에 앞서 남북한 관계, 대 아랍국 관계, 그리고 석유 수급의 문제들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 지속의 필요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은 동맹 지속의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와, 이러한 무기를 전세계로 유포함으로써 세계 질서를 교란시키려는 후세인 정권의 타도에 앞장서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도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더 이상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해 나갈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결국 북한도 개방,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들이 한국이나 미국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판단과 원칙 하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이라크전쟁 지원은 아주 명백하다. 먼저, 지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신중히 하되, 결코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로 임해서는 안된다. 당분간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구도가 지속될 것은 명백하다. 동맹국으로서 이 체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어야 한다. 지원의 수준은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요인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편에 비중을 두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이 미국이 바라는 시기를 넘겼을 때는 동맹의 견고성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걸프전 이래 일본은 망설임과 몸조심을 두고 미국은 항상 못 마땅해 한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이 한미 동맹 지속의 비용이라면, 대미 지원은 향후 동맹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때를 놓친 투자는 때로는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